

상주지역 주부의 식생활 의식 실태 조사(연령별) +

박모라 · 박어진*

상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카톨릭상지대학 식품영양과*
(2001년 5월 30일 접수)

Th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Housewives Eating Habit in Sang-Ju City according to ages +

Mo-Ra Park and Eo-Jin Park*

Dept. of Food and Nutrition, Sa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Catholic Sangji College**

(Received May 30, 200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conscious of eating habit of housewif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0 housewives who were the age group of 20-60's in Sang-Ju. The survey was taken place from May to June in 2000.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consciousness according to housewife's age group: 1. As the age goes up, the housewife had less consideration herself when they purchased food and decided cooking method. 2. As the age goes down, the order in having meal was depended on conditions. But as the age goes up, they considered the order as important thing like followings; eating together, eating separately according to the sex, male first, senior first, housewives lastly. 3.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was distinction depending on sex in meal as age goes up. And The subject was conscious that the delicious and valuable meal served to male, senior and child before. 4. Regardless of senior, the consciousness for the skipping meal was high as the age goes down. 5. As the age goes up, female and seniors showed that leftover was not so good. 6. The consciousness that housewives were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meal was high as the age goes up, but they had further difficulty in preparing meal as the age goes down. 7. In considering that male and senior should be participated in the kitchen work, they had high consciousness as the age goes down. 8. About role of cooking, the consciousness was high in case of male as the age goes down, in case of Female and housewife were high as the age goes up. 9. As the age goes up, The consciousness was high that Female must buy the food. 10. As the age goes up, they had high consciousness in considering that the meaning of meal was related to survival, that noodle and bread were not meal. And the consciousness about that eating out was not good for health was high as the age goes up.

Key Words : The consciousness of eating habit, Eating habi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research fund of sangju national university in 1999.

교신저자: Mo-Ra Park, Dept. of Food and Nutrition, Sangju National University, 386 Gajangdong Sangju, Gyeongbuk 742-170, Korea.

Tel:82-54-530-5304 Fax:82-54-530-5309 E-mail: mrpark@sangju.ac.kr

I. 서론

최근 건강과 식생활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유도하고자 영양학, 보건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각적 학문들의 접근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과 식행동과의 관계는 단순히 영양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영양환경, 생활양식, 가치관을 총망라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¹⁾²⁾³⁾ 식행동 변화를 위한 행동변화의 Model 연구가 국내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⁵⁾⁶⁾.

식생활이란 문화의 일 형태로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정서의 필요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다⁷⁾. 그리고 의식이란 사회적,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진 감정, 사상, 태도, 행동양식을 포함한 개념으로 의식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⁸⁾ 그러므로 식생활 의식은 주변환경과 더불어 형성되어지는 식생활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양식이고 사회정서의 필요에 의해 식생활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행동이 변화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유도함에 따라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식생활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 식생활의 주역이 되어 가족전체의 식생활을 주도하고 있으나 식생활의 내용은 남편이나 어른 중심적 의식이 강하다. 물론 최근에는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와 부부중심의 식생활 관리 경향이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식생활의 주역은 주부이고 또 대다수의 주부들이 공감하는 식생활 의식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 식생활 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사려된다. 이에 김 등²⁾은 식행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정신건강 상태, 교육수준보다 가치관이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보고하면서 영양개선이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⁷⁾는 식생활에 관계하는 가치관은 주거지역, 출생지역, 학력,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김 등⁹⁾은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식습관 변화에 관해 조사한 결과 식습관은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응과 함께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靑木 宏¹⁰⁾은 食意識이 지식, 경험, 습관 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협의의 환경으로 소비자들의 속성 즉 인성, 성격, 연령, 직

업 등이 관계하여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식생활 의식은 경험, 습관을 포함한 가치관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의 문화적 환경과 서로 상관을 가지면서 특정한 형태로 표현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식생활 의식이 미래의 식생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생활의 시스템적 체제하에 식생활 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식생활 의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령별 식생활 의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실제로 岡安¹¹⁾은 식생활의식 조사를 주부 대상으로 78년이후 2년마다 3회에 걸쳐 조사하여 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연구는 식생활에 대한 식행동 조사 연구¹²⁾¹³⁾와 현 식생활 행동과 영양섭취실태와의 관계연구¹⁴⁾¹⁵⁾, 또한 영양교육을 통한 식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¹⁶⁾¹⁷⁾가 많고 가치관을 포함하는 식생활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정서를 포함한 식생활 의식에 대한 조사 및 체계성 연구가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의 지침을 위해서도 그리고 현재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주시 주부 2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의식을 조사하여 연령별로 분석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며 나아가 앞으로의 식생활 행동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표본의 연령별 고른 분포를 얻기 위하여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¹⁸⁾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 50명씩 총 25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2000년 5월~6월에 시행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주부들의 식생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⁷⁾¹²⁾¹⁵⁾를 토대로 저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고 조사내용은 식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현재 식행동을 조사하여 식생활 의식과 비교하였다. 질문지는 상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본 조사는 3학년 학생들이 사전교육 후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총 설문지 250부 중 유용한 자료 245(98%)부를 PC 용 SPSS Package Program(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질문에서 관계가 없는 응답은 Missing값으로 처리하고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잔식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질문의 응답은 Likert의 5점 척도법에 의해 1점 그렇치 않다, 2점 약간 그렇치 않다, 3점 어느 쪽도 아니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연령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연령별 평균차이는 ANOVA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성 있는 항목은 연령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05수준에서 Duncan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생활 정보원에 대한 신뢰

식생활 정보원에 대한 주부들의 신뢰정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즉 본 조사의 주부들은 전문서적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다음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이며 인터넷은 비교적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부들의 인터넷에 대한 낮은 신뢰의식은 요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높은 신뢰의식을 가지는 것과는 대조되는 경향으로 주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 또 미숙하여 잘 모르므로 신뢰하기 어려워 낮은 신뢰의식을 보인 것으로 사려된다. 실제 본 조사에서 인터넷에 대한 항목은 전체조사자의 43.3%만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 의식

은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의 3점과 '약간 신뢰한다'는 4점 사이의 평균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홍¹⁹⁾의 보고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영양정보를 가정과 교과서보다 잡지,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워 볼 때 식생활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습득할 경향이 높아 식생활의 바람직한 관리가 어렵다 할 것이다. 기타 정보원은 주변사람이나 친지, 가족에게서 정보를 얻는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식품정보원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식품구매와 가족원

식품구매 시 가족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즉 식품 구매 시 가장 의식을 많이 하는 가족원은 시아버지이고 다음 시어머니이며 그리고 남편과 자녀 남, 자녀 여, 주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부 자신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의식평균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만이 있는 가족형이거나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핵가족형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 주부 자신에 대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그래서 <Table 2>에서와 같이 가족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부 자신에 대한 의식은 낮아지고 다른 가족원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론되어 진다. 특히 자녀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의식이 높아져 최근 자녀 중심적 가족생활 의식이 식생활에도 반영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20대, 30대, 50대 응답자(3.7%) 중에서는 기타 가족에 대해 매우 많이 의식한다고 하였는데 기타가족은 시동생, 시누이, 먼 친척 등을 들었다.

<Table 1> The conscious degree to trust of information source for eating habit

Information source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Inter-net		3.30±.71 ¹⁾	3.13±.78	3.00±1.06	3.15±.80	3.33±.58	3.19±.79(106)	.518
TV, Radio		3.45±.76	3.48±.79	3.51±.75	3.50±.83	3.35±.90	3.46±.80(228)	.243
Newspaper, Magazine		3.50±.76	3.55±.69	3.58±.70	3.37±.73	3.12±.85	3.46±.74(199)	1.882
Books		3.84±.72	3.68±.72	3.69±.68	3.60±.74	3.25±.86	3.66±.74(150)	1.919
The other		4.14±.38	4.67±.58	4.50±.71	3.50±.71	4.67±.58	4.29±.59(17)	2.199

1) M±SD

Response number

<Table 2> The conscious degree of food purchasing and family member

Family member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Myself		4.25 ± .63 ^{1)c}	3.97 ± .80 ^{bc}	3.54 ± .95 ^a	3.63 ± .88 ^{ab}	3.73 ± 1.06 ^{ab}	3.83 ± .91(245)	5.496***
Husband		4.32 ± .62	4.26 ± .45	4.12 ± .69	4.23 ± .56	4.41 ± .58	4.27 ± .59(240)	1.571
Father-in-law		4.19 ± .51	4.42 ± .51	4.22 ± .81	4.25 ± .72	4.50 ± .76	4.29 ± .65(86)	.584
Mother-in-law		4.13 ± .46	4.44 ± .51	4.21 ± .74	4.28 ± .72	4.38 ± .65	4.28 ± .62(98)	.789
Son		4.52 ± .51	4.38 ± .54	4.20 ± .74	4.12 ± .62	4.16 ± .60	4.27 ± .63(156)	1.865
Daughter		4.42 ± .51	4.29 ± .63	4.20 ± .77	4.03 ± .56	4.12 ± .62	4.21 ± .64(138)	1.299

1) M ± SD

Response number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5$

***: P<.001

3. 조리법의 결정과 가족원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기호가 달라 섭취에 큰 차이를 보이고 한 가족원이라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영양소의 섭취량은 차이가 크다. 이에 본 조사의 주부가 조리법의 결정 시 가족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에서처럼 조리법은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녀 남, 자녀 여, 주부의 순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식품 구매 시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가족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41%만이 기타 가족(시동생, 시누이, 먼 친척 등)에 대해 의식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조리법의 결정 역시 여전히 주부에 대한 의식은 다른 가족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부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식생활 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연령별 조리법의 결정 시 가족원에 대한 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족원은 주부 본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식사순서

식사순서에 대한 의식은 <Table 4>에서처럼 '가족전체가 같이 해야한다'는 의식이 3.98±.99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의 식생활에서 가족 중심적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갈 것으로 사려된다. 그리고 다음 순은 바쁜 현대의 시간에 맞게 '형편대로 식사를 해야한다'는 의식(3.76±.93)으로 시간적 제약은 식사 순서에 대한 우리의 전통의식을 퇴색시키고 시간의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의식이 식생활에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통적 식사순서는 의식정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식사순서에 대한 의식은 전 항목에서 유의한 연령 차이를 보였는데 '형편대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식 항목 외는 전 항목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식 평균이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다른 식사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주부가 가장 마지막에 식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은 우리 나라 문화의식이 반영된 식생활 방식으로 연령이

<Table 3> The conscious degree of decision-making for cooked method and family member

Family member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Myself		4.20b ± .66 ¹⁾	3.92 ± .86 ^{ab}	3.67 ± .92 ^a	3.57 ± .91 ^a	3.65 ± 1.04 ^a	3.81 ± .91(244)	4.163**
Husband		4.27 ± .57	4.24 ± .56	4.22 ± .62	4.26 ± .64	4.32 ± .60	4.26 ± .59(241)	.176
Father-in-law		4.19 ± .51	4.26 ± .45	4.17 ± .79	4.35 ± .59	4.00 ± .76	4.22 ± .60(86)	.561
Mother-in-law		4.13 ± .46	4.28 ± .46	4.21 ± .72	4.41 ± .59	4.23 ± .60	4.25 ± .58(100)	.706
Son		4.43 ± .51	4.29 ± .64	4.09 ± .78	4.00 ± .83	4.11 ± .68	4.18 ± .72(154)	1.560
Daughter		4.32 ± .48	4.24 ± .75	4.08 ± .72	3.93 ± .80	4.06 ± .77	4.12 ± .73(134)	1.127

1) M ± SD

Response number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5$

** : P<.01

<Table 4> The consciousness of eating order

Items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Together with Family		3.65 ± 1.15 ^{1)a}	4.00 ± .76 ^{ab}	3.98 ± .87 ^{ab}	4.04 ± .82 ^b	4.28 ± .58 ^b	3.98 ± .88(245)	3.395*
Each of sex		1.27 ± .53 ^a	1.21 ± .41 ^a	1.38 ± .49 ^{ab}	1.49 ± .59 ^b	1.53 ± .59 ^b	1.37 ± .53(237)	3.337*
Frist male and after female		1.18 ± .44 ^a	1.27 ± .68 ^{ab}	1.33 ± .56 ^{ab}	1.44 ± .54 ^b	1.51 ± .63 ^b	1.34 ± .58(238)	2.434*
By conditions		4.02 ± .74 ^b	3.58 ± 1.05 ^a	3.86 ± .76 ^{ab}	3.84 ± .85 ^{ab}	3.48 ± 1.15 ^a	3.76 ± .93(243)	2.760*
Lastly housewife		1.22 ± .47 ^a	1.26 ± .49 ^a	1.33 ± .52 ^{ab}	1.52 ± .58 ^{bc}	1.58 ± .58 ^c	1.38 ± .54(237)	4.217**
First senior and after family		1.86 ± .94 ^a	1.70 ± .99 ^a	1.73 ± .91 ^a	2.02 ± 1.08 ^{ab}	2.30 ± 1.24 ^b	1.91 ± 1.05(235)	2.568*
in order of senior, husband, child, and housewife		1.45 ± .58 ^a	1.37 ± .74 ^a	1.48 ± .62 ^a	1.60 ± .74 ^{ab}	1.80 ± .82 ^b	1.53 ± .71(232)	2.479*

1) M ± SD

Response number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5

*: P<.05

높을수록 식사순서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본 조사의 주부들이 실행하고 있는 식사순서의 형태는 (Fig. 1)에서처럼 연령에 유의한 차이 없이 가족 전체가 55.2%, 형편대호가 43.1%로 높은 빈도를 보여 의식과 실 행동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이러한 의식구조는 본인과 타인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이중적 가치관을 적용하여 가치의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식생활은 물론 생활의 합리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 실제 실행하는 식사순서에 대한 형태는 어른이 먼저하고 가족이 식사하는 경우가 17%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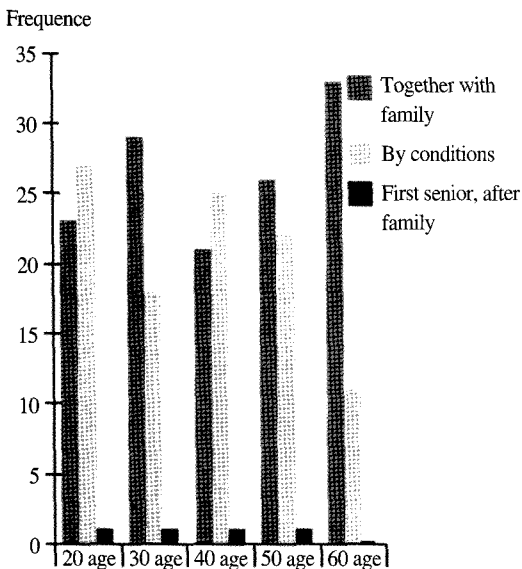
다른 형태는 조사되지 않았다.

5. 잔식의 처리

식사 후 잔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은 <Table 5>에서와 같이 밥류(50.0%)와 김치류(53.2%)는 원하는 가족원이 먹어야 하고 국·찌개류(35.9%)는 버리며 반찬류(40.0%)와 후식류는 여자가 먹어야 한다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잔식의 처리에 주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은 잔식 항목 전체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 다른 가족원이 원치 않을 경우 주부가 먹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주부가 잔식을 처리하는 이유는 음식의 폐기에 대한 아까움과 도덕성에 관계한 의식이겠지만 중년 이후의 비만 증가와 고려할 때 잔식에 대한 주부 본인과 가족원의 의식변화가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잔식을 만들지 않는 적절한 1인 분량과 가족수에 상응하는 조리 또한 개인점시의 사용으로 음식찌꺼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식생활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6. 음식에 대한 의식

음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Table 6>과 같다. 먼저 음식에 따라 가족 개개인이 섭취해야 하는 종류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20대, 30대, 40대가 어른, 자녀가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다는 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의식평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2점 대의 점수로 조사되어 전통의식인 어른중심, 남성본위의 식생활 의식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Fig. 1> The actual order in having meal(Not significant at α=.05)

<Table 5> The treatment of leftover

Treatment	Dish	N(%)				
		Rices	Soups · Stews	Kimchis	A side dishes	Desserts
Throw		24(10.1)	85(35.9)	17(7.2)	38(16.9)	44(19.9)
Re-eating		4(1.7)	8(3.4)	2(0.9)	2(0.9)	4(1.8)
Housewife eat		6(2.5)	5(2.1)	4(1.7)	5(2.2)	7(3.2)
Male eat		6(2.5)	9(3.8)	7(3.0)	7(3.1)	7(3.2)
Female eat		54(22.7)	67(28.3)	54(23.0)	90(40.0)	102(47.5)
The wanting person eat		119(50.0)	37(15.6)	125(53.2)	52(23.1)	37(16.7)
Another Application		24(10.1)	25(10.5)	25(10.6)	30(13.3)	16(7.2)
The others.		1(0.4)	1(0.4)	1(0.4)	1(0.4)	1(0.5)
Total		238(100.0)	237(100.0)	235(100.0)	225(100.0)	221(100.0)

<Table 6> The consciousness of dish

Items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The difference of food eating depends on each group	Male	1.73 ± .96 ^{1a}	1.61 ± .84 ^a	1.86 ± .90 ^{ab}	2.18 ± 1.15 ^b	2.24 ± 1.06 ^b	1.92 ± 1.01	3.813**
	Female	1.73 ± .92 ^{ab}	1.56 ± .77 ^a	1.70 ± .65 ^{ab}	2.12 ± 1.05 ^c	2.02 ± .86 ^{bc}	1.82 ± .88	3.621**
	Senior	2.10 ± 1.20	2.17 ± 1.26	2.04 ± .95	2.57 ± 1.27	2.52 ± 1.11	2.27 ± 1.18	2.214
	Child	2.18 ± 1.24	2.34 ± 1.29	2.08 ± 1.00	2.43 ± 1.17	2.33 ± 1.01	2.27 ± 1.15	.710
Eating order of delicious and valuable food by each group	Male	1.35 ± .66 ^a	1.37 ± .57 ^a	1.96 ± 1.09 ^b	1.85 ± 1.03 ^b	2.52 ± 1.13 ^c	1.80 ± 1.01	13.209***
	Female	1.41 ± .70 ^a	1.31 ± .51 ^a	1.68 ± .74 ^b	1.67 ± .59 ^b	1.89 ± .53 ^b	1.59 ± .65	6.594***
	Senior	2.67 ± 1.45 ^a	3.15 ± 1.49 ^{ab}	3.20 ± 1.26 ^{ab}	3.53 ± 1.04 ^{bc}	3.61 ± 1.11 ^c	3.22 ± 1.32	4.177**
	Child	1.62 ± .78 ^a	1.75 ± .89 ^{ab}	1.86 ± .86 ^{ab}	2.06 ± .90 ^{bc}	2.26 ± .88 ^c	1.91 ± .88	4.159**
Skipping meal by each group	Male	2.96 ± 1.09 ^b	3.11 ± 1.11 ^b	2.34 ± 1.15 ^a	2.37 ± 1.03 ^a	1.98 ± .80 ^a	2.56 ± 1.12	9.545***
	Female	2.98 ± 1.09 ^b	3.08 ± 1.11 ^b	2.34 ± 1.15 ^a	2.37 ± 1.03 ^a	2.09 ± .89 ^a	2.58 ± 1.12	8.135***
	Senior	2.88 ± 1.11 ^b	2.94 ± 1.18 ^b	2.30 ± 1.13 ^a	2.18 ± .93 ^a	1.96 ± .82 ^a	2.46 ± 1.11 ^a	8.480***
	Child	2.98 ± 1.10 ^b	3.08 ± 1.11 ^b	2.30 ± 1.13 ^a	2.33 ± 1.01 ^a	2.09 ± .89 ^a	2.56 ± 1.12	8.663***
Leftover of dish by each group	Male	2.63 ± 1.18	2.44 ± 1.07	2.42 ± 1.09	2.12 ± .99	2.15 ± .97	2.36 ± 1.07	1.954
	Female	2.63 ± 1.18 ^b	2.44 ± 1.07 ^{ab}	2.42 ± 1.09 ^{ab}	2.08 ± .95 ^a	2.11 ± .92 ^a	2.34 ± 1.06	2.426*
	Senior	2.67 ± 1.16 ^b	2.50 ± 1.09 ^{ab}	2.48 ± 1.07 ^{ab}	2.08 ± .96 ^a	2.18 ± .96 ^a	2.39 ± 1.07	2.572*
	Child	2.65 ± 1.18	2.48 ± 1.07	2.42 ± 1.09	2.10 ± .94	2.15 ± .97	2.36 ± 1.07	2.313

1) M ± SD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5

*** P<.001, **P<.01, *P<.05

본 조사 대상자들이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노인어른, 자녀의 Life cycle에 따른 생리·신체적 이유라 응답하였다. 가족원에 따른 음식의 차별성은 남자와 여자인 경우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식의 구별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맛있고 귀한 음식의 섭취에 대한 순위의식은 어른(3.22±1.32)이 남자(1.80±1.01), 여자(1.59±.65), 자녀(1.91±.88)보다 높은 의식 평균을 보여 장유유서의 문화의식을 식생활에서 볼 수 있었다.

다음 한끼를 굶는 것에 대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남자(2.56), 여자(2.58), 어른(2.46), 자녀(2.56) 모두 비슷한

평균차이를 보이거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굶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높아(P<.001)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에 대한 경시의식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 등²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결식을 많은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며 결식의 습관성으로 영양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심도있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가족원에 따라 음식을 남겨도 되는가에 대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남자(2.36), 여자(2.34), 어른(2.39), 자녀(2.36) 모두 2점 대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식에 가깝고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자

(P<.05)와 어린(P<.05)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식생활과 관계한 가사일

식생활에 관계되는 가사일 즉 식사준비, 부엌일, 조리, 식품구매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다. 즉 식사준비는 주부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의식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P<.001) 연령이 높을수록 식생활에 대한 역할이 주부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원 누구든지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의식과 행동들이 젊은 층 도시 주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또 증가하는 노인부부의 경우 노인주부들이 식생활 전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식이 표출되는 경향이므로 식사준비에 대한 가족원들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식사준비는 연령이 낮은 주부일수록 어렵다는 의식이 높아(P<.001) 이로 인해 잦은 외식과 가공식품의 사용이 가정에서 증가하는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가족원간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부엌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은 여자(3.93 ±.66), 자녀(3.76±.73), 남편(3.39±1.01), 어른(3.37±.95) 순으로 평균 의식 순위를 보였으나 여자가 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한편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남자(P<.001)와 어린(P<.01)의 부엌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이라 연령간의 상충되는 의식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남자가 부엌일을 해야한다는 의식은 연령간 매우 큰 의식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해 요즘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사시간은 미래의 식생활에 대한 역할훈련으로 식생활 의식의 차이를 매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사려된다.

조리에 대한 역할은 다른 가족원에 비해 남자(2.73 ±1.02)가 조리를 해야한다는 의식평균이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P<.01)보다 여자(P<.001), 주부(P<.001)쪽에서 조리를 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식품의 구입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자가 구입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았다.(P<.001)

8. 식사에 대한 의식

주부들의 식사에 대한 의식을 식사외미, 3식의 중요성, 밥의 범위, 식사량, 외식, 손님식사로서의 예절에 관해 조사한 결과 <Table 8>과 같다. Table에서처럼 본 조사의 주부들은 식사가 건강증진(3.96±.64)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다음이 영양보충(3.71±.77), 생명유지(3.01 ±1.12), 기호증진(3.00±.96), 허기만족(2.71±1.10)의 의미라 하여 식사에 대한 욕구 의식이 건강추구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 등²⁰⁾이 보고한 우리의 음식문화가 건강을 중시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한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생명유지(P<.05)에 대한 의미는 연령

<Table 7> The consciousness of related to housework

Items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	ANOVA(DF=4)
Preparing for meal	Housewife's role	2.25 ±.93 ^{1a}	2.59 ±1.17 ^{ab}	2.96 ±1.11 ^{bc}	3.25 ±1.12 ^c	3.37 ±1.20 ^c	2.87 ±1.17	8.540***
	Be difficult	3.71 ±.88 ^c	3.55 ±.84 ^{bc}	3.24 ±.99 ^{ab}	3.10 ±1.01 ^b	2.87 ±1.01 ^a	3.30 ±.99	6.133***
participating in Kitchen work	Male	3.96 ±.56 ^c	3.79 ±.75 ^c	3.33 ±1.05 ^b	3.10 ±1.01 ^b	2.72 ±1.11 ^a	3.39 ±1.01	14.665***
	Female	3.98 ±.58	3.94 ±.60	3.82 ±.66	3.86 ±.71	4.07 ±.74	3.93 ±.66	1.052
	Child	3.84 ±.70	3.78 ±.67	3.56 ±.84	3.81 ±.67	3.83 ±.74	3.76 ±.73	1.271
	Senior	3.65 ±.83 ^b	3.64 ±.89 ^b	3.28 ±1.01 ^{ab}	3.19 ±.98 ^a	3.09 ±.94 ^a	3.37 ±.95	3.651**
Role of cooking	Male	3.12 ±.79 ^b	2.98 ±.93 ^b	2.48 ±.95 ^a	2.53 ±1.08 ^a	2.54 ±1.17 ^a	2.73 ±1.02	4.379**
	Female	3.27 ±.85 ^a	3.43 ±.86 ^a	3.45 ±.89 ^a	3.61 ±.89 ^a	4.11 ±.60 ^b	3.57 ±.87	7.097***
	Housewife	3.20 ±.89 ^a	3.64 ±.76 ^a	3.51 ±.92 ^a	3.62 ±.91 ^a	4.09 ±.59 ^b	3.61 ±.87	6.975***
	Wanting person	3.37 ±.96	3.42 ±.94	3.24 ±.94	3.06 ±1.01	2.91 ±1.02	3.21 ±.98	2.238
Food purchasing	Female	1.94 ±.73 ^a	2.04 ±.96 ^{ab}	2.37 ±.97 ^b	2.53 ±1.16 ^c	3.00 ±1.09 ^d	2.36 ±1.05	8.656***
	Wanting person	3.29 ±1.01	3.14 ±1.06	2.88 ±1.08	2.84 ±1.09	2.80 ±.96	3.00 ±1.05	2.123

1) M ± SD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5

*** P<.001, **P<.01, *P<.05

<Table 8> The consciousness of meal

Items		Age	20-29	30-39	40-49	50-59	Over 60	Total(N ^a)	ANOVA(Df=4)
Meaning of meal	Hunger satisfaction		2.53 ± .97 ¹⁾	2.49 ± 1.02	2.66 ± 1.19	2.92 ± 1.16	3.00 ± 1.07	2.71 ± 1.10	2.137
	Nutrition supplement		3.59 ± .83	3.90 ± .65	3.72 ± .86	3.76 ± .69	3.60 ± .81	3.71 ± .77	1.311
	Health promotion		3.84 ± .67	4.04 ± .68	4.08 ± .63	4.04 ± .41	3.80 ± .75	3.96 ± .64	1.934
	Taste promotion		3.10 ± .89	3.23 ± .99	2.92 ± .94	2.98 ± .90	2.76 ± 1.05	3.00 ± .96	1.660
	Life maintenance		2.88 ± 1.08 ^a	2.71 ± 1.24 ^a	2.88 ± 1.15 ^a	3.19 ± 1.00 ^{ab}	3.44 ± 1.01 ^b	3.01 ± 1.12	3.288*
Importance of meal	Breakfast		3.76 ± .71	4.00 ± .58	4.02 ± .74	4.14 ± .61	3.96 ± .63	3.98 ± .66	2.181
	Lunch		3.67 ± .82	3.71 ± .58	3.82 ± .66	3.73 ± .86	3.78 ± .87	3.74 ± .76	.304
	Dinner		3.42 ± .91	3.63 ± .64	3.62 ± .92	3.57 ± 1.04	3.72 ± .86	3.56 ± .88	.750
Meaning of rice	Noodle is not meal		2.18 ± .87 ^a	2.18 ± .86 ^a	2.65 ± 1.07 ^b	2.55 ± 1.17 ^{ab}	2.87 ± 1.13 ^b	2.48 ± 1.05	4.029**
	Bread is not meal		2.31 ± .95 ^a	2.39 ± .95 ^a	3.02 ± 1.06 ^b	3.15 ± 1.18 ^{bc}	3.48 ± 1.09 ^c	2.86 ± 1.13	11.114***
Amount of meal	Suitable		4.04 ± .40	4.02 ± .43	4.12 ± .33	4.06 ± .32	3.89 ± .44	4.03 ± .39	2.288
	Full		2.51 ± .83	2.65 ± .97	2.54 ± .91	2.43 ± .98	2.83 ± 1.00	2.59 ± .94	1.277
Eat out	Bad in health		2.29 ± .76 ^a	2.71 ± 1.12 ^{ab}	2.49 ± 1.02 ^a	2.71 ± .99 ^{ab}	3.04 ± 1.09 ^b	2.64 ± 1.02	3.771*
	For male		2.69 ± 1.14	2.75 ± 1.16	2.54 ± .97	2.53 ± 1.02	2.89 ± 1.04	2.68 ± 1.07	.954
	For female		2.69 ± 1.14	2.75 ± 1.16	2.58 ± .99	2.45 ± .98	2.78 ± 1.01	2.65 ± 1.06	.798
	For delicious and expensive meal		2.00 ± .75	1.96 ± .74	1.94 ± .62	1.84 ± .75	1.84 ± .67	1.91 ± .71	.457
Meal manner about visitor	Server plenty of foods to visitor		2.75 ± 1.02	2.88 ± 1.02	3.14 ± 1.02	3.21 ± 1.20	3.24 ± 1.08	3.04 ± 1.08	2.063
	Left over		1.76 ± .71	1.73 ± .73	1.72 ± .54	1.79 ± .77	1.96 ± .79	1.79 ± .71	.843
	The best meal for visitor is meats		2.49 ± 1.03	2.33 ± 1.07	2.35 ± .83	2.55 ± 1.08	2.85 ± 1.13	2.51 ± 1.04	1.948

1) M ± SD

a,b,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05$

*** P<.001, **P<.01, *P<.05

이 증가할수록 의식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와 비교할 때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어 세대간 식사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었다.

3식의 중요성은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0대, 40대, 50대에서 아침이 다른 식사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김²¹⁾이 주부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을 중시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 보고와 일치하나 김²⁰⁾도 도시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녁, 점심, 아침 순으로 중시한다고 한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그리고 밥의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수는 밥의 대용으로 인정하나 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빵의 경우 밥의 범위로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P<.001).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국수(P<.01), 빵(P<.001)을 밥의 범위로 의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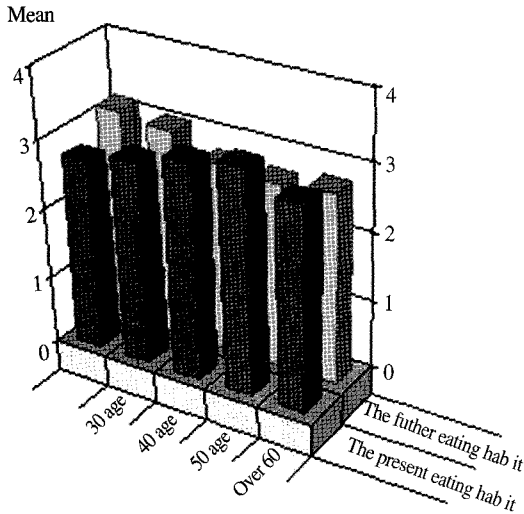
식사량에 대한 의식은 적당히 하는 것이 연령에 관계없이 좋다는 의식이 있었으나 실제 식생활에서 조사

대상 주부의 13.4%가 식사량(과식: 9.0%, 폭식: 3.7%, 식사량: 3.7%)의 통제가 어려운 것을 지적하여 의식만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외식의 이미지는 외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의식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5) 성별에 따른 외식의 당위성 의식은 매우 낮았다. 또 외식은 맛있고 비싼 것을 먹어야 한다는 의식도 연령에 관계없이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님의 식사 예절에 대한 의식은 식사량은 남길 정도로 대접해야 한다는 의식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나 연령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식사를 남기는 것이 보기 좋다는 의식이나 대접음식으로 고기류가 최고라는 의식은 연령에 관계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식생활의 합리화를 볼 수 있었다.

9. 본인의 식생활에 대한 의식

본인의 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현재의 식생활에 대



<Fig. 2> The consciousness of one's eating Habit and Change in future(Not significant at $\alpha=.05$)

한 평가와 앞으로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의식으로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다. 즉 현재의 식생활은 50대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20대가 가장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미래 식생활의 변화에 대한 의식은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대가 앞으로의 식생활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50대가 가장 낮은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주부의 식생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상주시에 거주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주부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5월에서 6월까지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정보에 대한 신뢰 의식은 전문서적,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유의한 차이없이 연령별 비슷한 신뢰 수준이었다.

둘째, 식품구매 시 가족원에 따른 의식정도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과 남자자녀, 여자자녀, 주부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부 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식품구매 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P<.001$).

셋째, 조리법의 결정에서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자자녀, 여자자녀, 주부의 순으로 인식하였고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부 본인은 조리법의 결정 시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P<.01$).

넷째, 식사순서에 대한 의식은 가족중심과 형편대로 식사를 해야한다는 의식이 연령에 관계없이 높았으나 실제 식사는 형편대로 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잔식의 처리는 다른 가족원에 비해 주부가 처리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여섯째, 음식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고 인식하였고($P<.01$) 맛있고 귀한 음식은 남자, 어른, 자녀가 섭취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았다($P<.01$).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원이 한끼 굶어도 된다는 의식은 낮았고($P<.001$)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을 남겨도 된다는 의식이 높았다.

일곱째, 식사준비에 대한 의식은 주부가 해야한다고 의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P<.001$) 식사준비의 어려움은 연령이 낮을수록 어렵다고 인식하였다($P<.001$). 그리고 부엌일은 여자와 자녀가 분담해야한다는 의식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P<.001$), 어른($P<.01$)이 분담해야한다는 의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의식을 소유하였다. 조리에 대한 역할의식은 여자, 주부가 해야한다는 의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나($P<.001$) 남자($P<.01$)와 먹고싶은 사람이 해야한다는 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다. 식품구입은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P<.001$)가 하기보다 먹고싶은 사람이 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여덟째, 식사는 연령이 높을수록 허기만족, 생명유지($P<.05$)의 의미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호증진의 의미로 인식하였고 3식 중 중요한 식사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밥의 의미로서 국수($P<.001$)와 빵($P<.01$)의 허용여부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식사는 연령에 관계없이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외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P<.05$). 외식의 당위성에 대한 성별차이는 없고 맛있고 비싼 것으로 해야한다는 의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손님에 관계한 식사예절은 남길 정도로 접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나 남기는 것은 보기 싫고 접대음식으로 고기류가 가장 좋다는 의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주부 본인의 현재 식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은 연령별 유의한 차이없이 문제가 크게 없다는 의식 경향($2.99 \pm .93$)이었고 미래의 식생활에 대한 변화의식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지 않는 것($2.88 \pm .94$)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상주시 주부들의 식생활 의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식생활 전반에서 가족원에 따라 식생활 의식에 연령별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의식이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연령별 식생활 의식의 차이가 식생활 행동에도 많은 차이를 가져오리라 짐작된다. 그 결과 식생활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가족간의 갈등 유발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영위로 합리적인 식생활 관리를 이끌지 못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들로 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생활 의식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식생활 의식에 관계하는 변인으로 연령만을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영향요인과 요인들간의 관계연구가 요구된다고 사려된다. 뿐만 아니라 식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영양교육 등의 시행에서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식생활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연구가 이뤄져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지침의 표준화를 마련하기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Moon HK. Recommendations to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Korean J. Nutrition 29(4): 430-433, 1996.
- 2) Kim JH, Lee MJ, Yang IS and Moon S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ary Culture 7(1): 1-8, 1992.
- 3) Moon SJ. Nutritional Problems in Korea, The Korean J. of Nutrition 29(4): 371, 1996.
- 4) Oh SY, Cho MR and Kim JO. Analysis on the Stages of Change in Fat Reducing Behavior and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in Adult Femal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5(4): 615-623, 2000.
- 5) Contento IR, Balch GI, Bronner YL, Lytle LA, Maloney SK and Olson CM. Theoretical Frameworks or Models for Nutrition Education, J. Nutr Educ 27(6):101-199, 1995.
- 6) Oh SY, Cho MR, Kim JC and C YY. Comparison of Nutritional Status and beliefs on Health Behavior Regarding Stages of Change in Dietary Fat Reduction among Korean Men and Women,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34(2): 222-229, 2001.
- 7) Lee HO.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Value Types, Ewha Women's Univ. Graduate thesis, 1984.
- 8) Cha JH. Value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and Derivation of Some Hypotheses Relating to Psychological Value, Psychological Science 3(1), 1994.
- 9) Kim JS and Sim YJ.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to Demographics and Dietary Habits among Korean American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2):243-249, 2001.
- 10) 青木e宏. 食意識と食行動, 食品工業 36(3): 61-66, 1993.
- 11) 岡安祥夫. 食生活における嗜好・意識の解析と應用, 日本食品工業學會誌 32(8):59-66, 1985.
- 12) Jin YH. Dietary Behaviors of Adults in Kimcheon City, Korean J. Dietary Culture 16(1):43-57, 2001.
- 13) Shin AS and Kim KK. Dietary Behaviors of Adults for Health in Ulsan City, Korean J. Dietary Culture 15(1): 17-28, 2000.
- 14) Chang NS, Kim JM and Kim EJ. Nutritional State and Dietary Behavior of the Free-Living Elderly Women, Korean J. Dietary Culture 14(2): 155-165, 1999.
- 15) Yoon H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Nutrient Intakes of Dietitians Living in Kangwon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4(4): 319-331, 1999.
- 16) Yoon HS, Yang HL and Her ES. Effect of Nutrition Program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Divers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5(3): 513-521, 2000.
- 17) Kang HJ, Kim KM, Kim KJ and Ryu ES. Effect-Evaluation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in Kindergarten, The Korean Nutr. Society 34(2): 230-240, 2001.
- 18)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344, 법문사, 1991.
- 19) Hong YJ. A Study on the Relation of Eating Behavior and Food Intake to Obesity Index of Adolesc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5): 545, 1999.
- 20) Kim ES, Jung BM and Chun HJ. The Survey of Meal Habits for The Urban Salaried Workers, Korean J. Soc. Food & Cookery Sci. 17(2): 91-104, 2001.
- 21) Kim HG. A Preliminary Study on Nutrition Education for Mothers: 1.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Behavior of Mothers,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 25(2): 55, 1987.